



임실군은 임실교육지원청, 한국치즈과학고등학교와 함께 지역거버넌스 중심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형 특성화고 공모 '맞손'

임실군·임실교육지원청·한국치즈과학고, 산업 고도화 구축 업무협약 체결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과 임실교육지원청, 한국치즈과학고등학교가 교육부 주관의 협약형 특성화고 공모사업에 힘을 모은다.

이를 위해 임실군(군수 심민)은 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남궁세창), 한국치즈과학고등학교(교장 박강덕)와 함께 지역거버넌스 중심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협약식은 한국치즈과학고등학교 주관으로, 임실군과 임실교육지원청뿐만 아니라 우석대학교,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한국수자원공사 삼진강댐지사, 임실치즈테마파크, 임실치즈클러스터, 친한F&B, 베스트웨스턴플러스 전주호텔, 뉴트라코어 등 총 18개 기관·단체가 참석해 함께 뜻을 모았다.

협약형 특성화고는 교육부 주관 공모사업으로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인재, 지역이 함께 디자인하는 학교'라는 비전하에 지자체-교육청-학교-유관기관 등이 협약을 체결하여 지역에 필요한 맞춤 교육을 실현하는 고등학교를 말한다. 교육부는 지역 기반의 협약형 특성화고를 3년간 35개를 선정하고, 학교별로 사업비 35~45억을 교육과정 고도화에 지원할 계획이다.

임실군은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로서 한국치즈과학고등학교를 치즈(로가공) 및 바이오 발효 미생물 분야 인재 육성을 위한 협약형 특성화고로 육성시켜 나가고 있다.

특히, 임실치즈 산업을 이끌 인재를 양성하고 한발 더 나아가 학생들이 관

내 기업에 취업, 지역 내 정주까지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역 인구소멸 문제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박강덕 한국치즈과학고 교장은 "협약형 특성화고 공모사업에 차질 없이 대응하여 한국치즈과학고 발전뿐만 아니라 임실군 치즈 산업 발전에 기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심 민 군수는 "한국치즈과학고가 협약형 특성화고 사업을 통해 임실치즈 산업을 이끌 인재 양성의 중추적인 기관으로 발돋움하기를 희망한다"며 "치즈 산업의 고도화뿐만 아니라 인구소멸 대응을 위한 정주 인구까지 늘릴 수 있는 선순환 체계가 마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군, 재정 신속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상반기 신속집행 추진상황 보고회

순창군은 지난 19일 고물가·고금리 여파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영일 군수 주재하에 전 부서장이 참석한 '2024년도 상반기 신속집행 추진상황 보고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군은 이번 보고회를 통해 신속집행 대상액 3,567억원 중 58.9%에 해당하는 2,101억 원을 상반기 목표액으로 자체 설정하고, 부서별 주요 사업 추진계획을 공유하는 한편, 사업별 문제점 파악과 전략적 해결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최 군수는 지역경제에 파급효

과가 큰 대규모 사업과 시설사업,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용역사업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하면서 특별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과, 올해 발주하는 공사·용역은 조기 계약 추진을 통해 선급금과 기성금 등을 최대한 집행할 것을 지시했다.

뿐만 아니라, 최 군수는 점차 지역으로 집행이 부진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허가, 보상 협의 등 사전 행정절차도 신속하게 이행하고, 현안사업과 공약사업 또한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해 줄 것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군은 속도감 있는 재정집

행을 위해 행안부 신속집행제도 활용 지침에 따라 긴급입찰, 선급금 집행 활성화, 계약심사 기간 단축, 관급자재 선고지 제도 등 관련 제도를 활용해 재정집행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군은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신속집행 추진단을 구성, 주기적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해 부진사업을 집중 관리하는 등 지속 관리할 계획이다. 최영일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경제 회복이라는 선순환 고리가 이어지기 위해서는 재정 신속집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스마트 복지·안전 플랫폼 구축 본격

남원시, 스마트 복지·안전 서비스 개선모델 개발 지원사업 선정

남원시는 19일 행정안전부가 공모한 '2024년 읍면동 스마트 복지·안전 서비스 개선모델 개발 지원사업'에 2년 연속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수원 세 모녀 사건과 신림동 반지하 침수사고 등을 계기로 정보통신(IT) 기술과 지역공동체 활동을 접목, 읍면동 복지·안전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이번 공모를 진행했다.

남원시는 2023년에 이어 이번 공모에도 선정되면서 국비 4천만원을 지원받아 지방비를 포함한 총사업비 8천만 원으로 '스마트 복지·안전 플랫폼 구축'을 위한 사업을 3월부터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사업은 노약자와 금동을 중심으로 △읍면동 복지안전 협의체 구성·운영 △찾아가는 복지·안전 교육 △주민관계망 형성 프로그램 △인공지능 스마트 플러그 지원 사업 △남원 복지·안전 119 앱 개발 등을 추진, 주민의 복지와 안전망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허인선 주민복지과장은 "이번 사업 선정으로 복지·안전 위기대응에 보다 촘촘하고 능동적인 민관협력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게 되었고, 복지 사각지대 선제적 발굴 및 체계적인 지원으로 주민들의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에이앤디 여행사, 외국인 관광객유치 협약

남원시는 20일, ㈜에이앤디(대표 손정권) 여행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나섰다.

이번 협약은 무인공항 전세기 운영 여행사와 협력을 통해 한류에 관심이 높은 동남아시아 관광객 등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보를 통해 남원시 관광산업 활성화와 도모를 위해 마련되었다.

협약 내용은 △해외관광객 유치에 위한 여행상품개발 기획 및 프로모션 추진 △SNS 및 미디어공동 마케팅을 통한 모객 극대화 △남원관광상품 개발과 판촉활동에 필요한 현지상품 홍보 지원 등이다.



또한 남원시는 국제관광시장 변화에 발맞춰 지속적인 신규 관광콘텐츠 발굴과 국내·외 여행업계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최경식 남원시장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발효관광재단, 정월대보름 '2024 순창달달놀이' 개최

갑진년 새해 정월 대보름을 맞아 오는 24일 순창발효테마파크 일원에서 한 해의 건강과 풍요를 기원하는 '2024 순창달달놀이'가 열린다.

순창군 출연기관인 (재)순창발효관광재단과 전주대 RIS사업단이 공동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우리나라 전통 명절 중 하나인 정월 대보름의 의미를 되새기고, 지역주민 및 관광객과 함께 모여 한 해의 건강과 풍요를 빌고자 마련됐다.

'2024 순창달달놀이'는 아이부터 어른까지 전 연령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진다. 주 행사무대인 매표관에서는 고추장 민속마을에서 운영하는 순창고추장만들기, 인절미 떡메치기, 미니메주

만들기와 재단에서 운영하는 무드등, 비즈팔찌 만들기 등 각종 체험공간과 함께 지역 업체들이 참여하는 각종 먹거리 판매 공간, 그리고 풍선아트와 페이스페인팅 등 이벤트 공간으로 구성된다.

아울러, 매표관 옆 고추장 상설문화마당에서는 지난날 열린 순창맛페스타에서 인기를 끌었던 겨울간식 체험존으로 꾸며져 군밤, 가래떡, 마시멜로 등 간식을 관광객들이 직접 화로에 구워 먹는 공간으로 조성해 즐거운 추억을 안겨줄 예정이다.

이외에도 참여자들의 오감을 만족시켜 줄 △이글루 캠핑 체험, △전통놀이 체험, △쿠기 클래스 등도 함께 즐길 수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지역 소식통



남원, 여성 일자리협 회의 개최

남원시는 민간단체와 공공기관이 손을 잡고 남원시 여성들을 위한 실효성있는 일자리 발굴에 나섰다. 이를 위해 시는 20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민·관협의체인 '남원시 여성 일자리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으며, 협의체는 일자리부서와 단체·학계 등 전문가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남원시의 여성 일자리 정책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현황 등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고, 여성 일자리와 관련해 우선 추진해야 할 정책 등을 제안하며 앞으로 시에서 추진할 일자리 정책의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협의체는 앞으로 정기·수시 회의를 개최해 지역 현황에 맞는 여성 일자리 발굴과 성장동력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논의를 통해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순창군이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의 대상은 전년도(2023년) 총 매출액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으로, 최대 30만원(전년도 카드매출액의 0.5%)까지 지원된다. 음식, 숙박, 서비스 등의 업종이 신청 가능하며, 유흥업소 등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의 보증·재보증 제한업종은 제외된다.

1인이 다수 사업체를 보유한 경우에는 2개 사업체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한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이며, 전년도 총매출액과 카드 매출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군에서 일괄 확인해 소상공인에게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해당되는 소상공인은 사업장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IMSEONG CHEESE
임실엔 치즈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 N 치즈

벨기에 출신 지정된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